

1.1 체언 – 명사, 대명사, 수사

(1) 명사: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예 사람, 꽃, 나무

① 자립 명사 –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명사들

② 의존 명사 – 꾸밈을 받아야지만 사용될 수 있는 명사

└ 관형사형 어미(예 –은, –는, –을, –던) 뒤의 ‘수, 것, 만큼, 따름, 뿐, 대로, 지, 채’ 등

└ 수관형사(예 한, 두, 세, 네) 뒤의 개, 그루, 마리, 명 등 단위를 나타내는 말

예 나는 할수 있다. / 영미가 가져온것은 책이다. / 난 할만큼 했다.

나는 그저 기쁠따름이다. / 그는 말만 그렇게 할뿐 실천하지 않는다.

내가 한대로 따라 해 봐라 / 그가 떠난지 10년이 넘었다. / 옷을 입은채로 물에 들어가다.

사과 두개 / 나무 두그루 / 토끼 세마리 / 친구 다섯명

적용 문제-1

2016학년도(2015년) 9월 평가원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국어에서는 의존 명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수효나 분량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 이지만, ①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자립 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사람을 세는 단위를 나타낼 수도 있다.

- 의존 명사 : 그 아이는 올해 아홉 살이다.
- 자립 명사 : 그는 사람을 부리는 재주가 있다.
-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 : 친구 다섯 사람과 함께 도서관에 갔다.

- ① 이 글에는 여러 군데 잘못이 있다.
- ② 앉은자리에서 밥 두 그릇을 다 먹었다.
- ③ 시장에서 수박 세 덩어리를 사 가지고 왔다.
- ④ 할아버지께서는 밥을 몇 숟가락 겨우 뜨셨다.
- ⑤ 나는 서너 발자국 뒤로 물러서다가 냅다 도망쳤다.

더 알아보기 I 의존 명사의 종류

의존 명사 뒤에 어떤 조사가 결합되는지에 따라 보편성, 주어성, 서술어성, 부사어성 의존 명사로 나눌 수 있다. 보편성 의존 명사는 어떤 격조사와도 잘 어울리고, 주어성 의존 명사는 주격 조사 '이/가'와, 서술어성 의존 명사는 서술격 조사 '이다'와, 부사어성 의존 명사는 부사격 조사와 결합한다. 물론 조사는 생략될 수 있다.

- 보편성 의존 명사 예 나에게 먹을 **것**이 없다. 나는 먹을 **것**을 좋아한다. 이것은 먹을 **것**이다.
- 주어성 의존 명사 예 어쩔 **수**(가) 없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니?
- 서술어성 의존 명사 예 죄선을 다할 **파**름이다. 죄선을 다했을 **뿐**이다.
- 부사어성 의존 명사 예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나도 할 **만큼** 했다. 나는 그가 공부를 잘하는 **줄**로만 알았다.

(2) 대명사: 대상의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말

① 인칭 대명사

- ㉠ 1인칭: 나, 저, 우리, 저희
- ㉡ 2인칭: 너, 너희, 자네, 당신, 그대, 귀하
- ㉢ 3인칭 [이이, 그이, 저이, 이분, 저분, 그분] ……
재귀 대명사: 저, 자기, **당신**, 저희

재귀 대명사란? 한 문장 안에서 나온 체언을 되풀이하지 않고 다시 받을 때 사용하는 대명사

예 철수는 **그**가 천재라고 생각한다.(대명사) vs 철수는 **자기**가 천재라고 생각한다.(재귀 대명사)

예 그는 **저**도 모르게 울음을 터트렸다.(그=저) / 아이들은 어려서 **저희**밖에 모른다.(아이들=저희)

예 이 책은 아버님 **당신**께서 생전에 아끼시던 것이다.(아버님=당신) ☆☆

② 지시 대명사: 사물이나 공간을 가리키는 대명사

	화자에게 가까움	청자에게 가까움	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떨
사물	이, 이것	그, 그것	저, 저것
공간	여기, 이쪽	거기, 그쪽	저기, 저쪽

③ 미지칭 대명사 / 부정칭 대명사 – 인칭, 사물에 모두 사용

㉠ 미지칭 대명사: 대상은 정해져 있으나 무엇인지 **모를 때** 사용

예 **누구**세요? 날짜가 **언제**야? 장소가 **어디**야? 그게 **무엇**이니?

㉡ 부정칭 대명사: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or 굳이 밝히지 않는 것**

예 **누구**나 환영입니다. **언제**든지 물어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예 그는 **뭐**에 훌린 듯이 걸어갔다. 오늘은 **어디** 갈 데가 있어.

더 알아보기 I 미지칭과 부정칭의 구별법

'누구, 언제, 어디, 무엇' 등 형태가 똑같아 구별이 쉽지 않다. 그러나 쉽게 말하면 부정칭은 ①정해지지 않은 것 (예 **누구**나 환영입니다), ②굳이 밝히지 않는 경우(예나 지금 **누구** 좀 만나러 가야 해.)이고, 그 외에 몰라서 묻는 질문은 대부분 미지칭이다(예아까 만난 사람은 **누구**야?).

적용 문제-2

2007학년도(2006년) 6월 평가원

〈보기〉의 ⑦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있는 것은?

〈보기〉

대명사는 인칭에 따라 ‘나, 우리’와 같은 1인칭, ‘너, 자네, 그대’와 같은 2인칭, ‘이분, 그분, 이이, 그이’와 같은 3인칭으로 나뉜다. ⑦ 그런데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형태가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서 두 가지 인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2인칭)

나.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젊었을 때 미인이셨다. (3인칭)

① 가: 그 일은 저희들이 먼저 하겠습니다.

나: 애들이 어려서 저희들밖에 모른다.

② 가: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나: 누구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③ 가: 그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나: 그와 같은 사실에 깜짝 놀랐다.

④ 가: 너희를 누가 불렀니?

나: 나는 너희 학교가 마음에 듈다.

⑤ 가: 우리 먼저 갈게요.

나: 우리 팀이 그 대회에서 우승했다.

(3) 수사: 수량이나 순서(=차례)를 나타내는 말

① 양수사(수량): 하나, 둘, 셋, 넷(고유어계) / 일, 이, 삼, 사(한자어계)

예 사람 다섯이 걸어온다.

② 서수사(순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고유어계) / 제일, 제이, 제삼, 제사(한자어계)

예 첫째가 진리이고, 둘째가 자유이다.

cf. ‘첫째’가 ‘형제자매에서 제일 손위인 사람’을 뜻할 때에는 명사이다.

(4) 체언의 공통점: 조사와 결합할 수 있음 ☆☆☆

예 책상이 넓다. - 명사

예 내가 밥을 먹는다. - 대명사

예 저기 사람 다섯이 있다. - 수사

1.2 용언 - 동사, 형용사

(1) 동사: 동작이나 과정을 나타내는 말

- └ 자동사: 주어의 움직임만을 나타내는 동사(목적어 無) 예 나는 학교에 **간다**.
- └ 타동사: 주어의 움직임이 목적어에도 영향을 주는 동사(목적어 有) 예 밥을 **먹다**.

(2) 형용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



더 알아보기 |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법

필수개념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은 '-ㄴ다(는다)'를 붙여보는 것이다. 동사는 결합이 가능하고, 형용사는 결합이 불가능하다.

- 예 달리다 - 달린다(O) / 먹다 - 먹는다(O) / 높다 - 높는다(X) / 예쁘다 - 예쁜다(X)
형태가 같은 동사와 형용사들도 이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예 아이가 시간이 갈수록 빨리 **크다/큰다(O)**. ∴ 동사, 그는 덩치가 **크다/큰다(X)**. ∴ 형용사
- 예 새벽이 벌써 **밝다/밝는다(O)**. ∴ 동사, 햇빛이 **밝다/밝는다(X)**. ∴ 형용사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아주 소수의 예외가 있다. 예를 들어 '잘생기다'는 '잘생긴다'가 불가능하지만 품사는 동사이다. 왜 동사인지는 '5. 시제와 상 5.5. ⑤더 알아보기'를 참고하자.



더 알아보기 | '있다'와 '없다'의 품사

필수암기

결론부터 말하면 '있다'는 동사와 형용사 모두 있고, '없다'는 항상 형용사이다. '있다'가 [머물다]의 의미일 때, 혹은 보조용언일 때에는 동사, [소유], [소재(所在)]의 의미일 때는 형용사이다.

- 예 여기에 움직이지 말고 **있어라**. 그는 내일 집에 **있는다고** 했다. - [머물다] ∴ 동사
아침에 일찍 일어나 깨어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다**. - 보조용언 ∴ 동사
나는 책이 10권 **있다**.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 - [소유] ∴ 형용사
컵이 책상에 **있다**. 방 안에 사람이 **있다**. - [소재] ∴ 형용사

그런데, 형용사 '있다'와 '없다'는 동사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품사는 형용사임을 알아두자.

- 예 생각이 **있는/없는** 사람 → 관형사형 어미 '-는'은 동사에만 결합되지만, 예외적으로 형용사 '있다/없다'에도 결합된다.

(3) 본용언과 보조용언

용언이 두 개 나열되었을 때는 '본용언+본용언'이거나 '본용언+보조용언'의 구성이다. 보조용언은 본용언 없이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한다.

- ① 본용언 + 본용언: 두 용언의 의미가 모두 살아있다.

- 예 종이를 휴지통에 **찢어 버린다**.
그는 학교에 밥을 **먹고 간다**.
문을 **열고 나가라**.
돈을 한꺼번에 말고 **나눠서 주어라**.

② 본용언 + 보조용언: 보조용언은 본용언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본용언 없이 문장을 구성할 수 없다.

예 내가 아끼는 옷을 동생이 **찢어 버렸다**.

밥을 다 **먹어 간다**.

그는 봇을 들고 글을 **써 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동생을 **업어 주었다**.



더 알아보기 | 본용언과 보조용언 구별하기

필수암기

용언이 두 개 나열될 때, 앞의 용언은 항상 본용언이지만, 뒤의 용언은 본용언이나 보조용언이다. 이때 뒤의 용언이 본용언인지 보조용언인지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바로 두 문장으로 쪼갤 수 있는지 없는지이다. 두 문장으로 쪼갤 수 있으면 본용언, 그렇지 않으면 보조용언이다. 또는 제1의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로도 알 수 있다.

예 그는 학교에 밥을 먹고 **간다**. ⇒ 그는 밥을 먹다. 그는 학교에 간다. ‘go’의 의미가 있음 ∴ ‘간다’는 본용언

예 종이를 휴지통에 **찢어 버린다**. ⇒ 종이를 찢는다. 종이를 휴지통에 버린다. ‘dump’의 의미가 있음 ∴ ‘버린다’는 본용언

예 나는 동생을 업어 **주었다**. ⇒ 나는 동생을 업었다. ‘give’의 의미가 없음 ∴ ‘주었다’는 보조용언

예 실수로 돈을 **찢어 버렸다**. ⇒ 실수로 돈을 찢었다. ‘dump’의 의미가 없음 ∴ ‘버렸다’는 보조용언

적용 문제-3

2017학년도(2016년) 6월 평가원 변형

〈보기〉의 ⑦과 쓰임이 유사한 것은?

〈보기〉

악기가 ⑦ 내는 소리의 식별

음악적 재료들이 움직이며 만들어 ⑦ 내는 형식

⑦은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여 서술어 기능을 한다. 그러나 ⑨은 혼자서는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용언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여 주는 ‘보조 용언’ 기능을 한다.

- ① 그 일을 다 해 버리니 속이 시원하다.
- ② 그는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 주었다.
- ③ 내일 경기를 위해 잘 먹고 잘 쉬어 둬라.
- ④ 그는 내일까지 돈을 구해 오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 ⑤ 일을 추진하기 전에 득실을 꼼꼼히 계산해 보고 시작하자.

(4) 어간과 어미

- ① **어간**: 활용을 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예 먹-, 가-, 달리-, 예쁘-
- ② **어미(語尾)**: 어간 뒤에 붙어서 활용을 할 때 변하는 부분 예 -고, -니, -아서, -(으)나

- ㉠ 어미의 종류
- 밥을 먹다. 밥 먹을 사람. 밥 먹고 가라.(어말 어미)
 - 밥 먹었니? 할아버지께서 집에 가시다.(선어말 어미)

‘어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단어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즉 ‘먹다, 먹을, 먹고’에서 ‘-다, -을, -고’는 단어의 맨 끝에 왔기 때문에 어말 어미이다. 반면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先) 온다는 의미이다. 즉 ‘먹었니, 가시다’의 ‘-었-, -시-’는 어말 어미 ‘-니, -다’ 앞에 왔으므로 선어말 어미이다. 선어말 어미에는 딱 2가지 종류만 존재하는데, 바로 ‘**시제와 높임**’이다.

필수암기

어말 어미	종결 어미(문장이 끝남)	밥을 먹다. 먹니?
	연결 어미	밥을 먹고 가라.
	전성 어미(성격을 바꿔줌)	밥 먹을 사람
	선(先)어말 어미(시제, 높임)	밥 먹었니? 집에 가시다.

㉡ 전성 어미의 종류

필수암기

- 명사형 전성어미: -(으)ㅁ, -기
예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 ‘기’가 ‘비다 오다’라는 문장을 명사처럼 만들어준다.
- 관형사형 전성어미: -(으)ㄴ, -는, -(으)ㄹ, -던
예 나는 [동생이 입은] 옷을 보았다. → ‘-은’이 ‘동생이 옷을 입다’라는 문장을 관형사처럼 만들어 준다.
- 부사형 전성어미: -게, -도록, -듯이
예 나는 [아이들이 지나가도록] 길을 비켜주었다. → ‘-도록’이 ‘아이들이 지나가다’라는 문장을 부사처럼 만들어준다.

적용 문제-4

2023학년도(2022년) 9월 평가원

〈보기〉의 ①~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기〉

국어의 어미는 용언 어간에 붙어 여러 가지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누어진다. 선어말 어미는 용언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제나 높임과 같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 선어말 어미는 하나 혹은 둘 이상이 쓰일 수도 있고 아예 쓰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어말 어미에는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가 있다. 어말 어미는 선어말 어미와 달리 하나만 붙고, 반드시 있어야 한다.

- 머무시는 동안 ①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 이 부분에서 물이 ② 샜을 가능성이 높다.
- ③ 번거로우시겠지만 서류를 챙겨 주세요.
- 시원한 식혜를 먹고 갈증이 싹 ④ 가셨겠구나.
- 항구에 ⑤ 다다른 배는 새로운 항해를 준비했다.

- ① ① : 선어말 어미 두 개와 연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② ② : 선어말 어미 없이 전성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③ ③ : 선어말 어미 세 개와 연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④ ④ : 선어말 어미 두 개와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 ⑤ ⑤ : 선어말 어미 한 개와 전성 어미가 사용되었다.



더 알아보기 | 전성 어미 vs 파생 접미사

파생 접미사는 뒤에서 다룰 예정이지만, 한번 간단하게 보고 가기로 하자. 전성 어미와 파생 접미사의 형태가 같아서 둘을 구별하는 문제가 수능에 많이 나온다.

‘꿈을 꿨’이라는 말을 봤을 때 ‘진짜’ 명사는 앞의 꿈일까 뒤의 꿈일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앞의 꿈이라고 잘 대답할 것이다. 이처럼 ‘진짜’ 명사는 동사 ‘꾸다’에서 완전히 명사로 바뀐 경우(=파생 접미사가 붙은 경우)이고, 뒤의 꿈의 품사는 여전히 동사이고 형태만 명사형으로 바뀐 경우(=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경우)이다. 이와 같이 ‘접미사’는 단어의 품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미’는 단어의 품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또 다른 차이점은 용언에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것은 여전히 품사가 용언이기 때문에 서술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꿈을 꿨’의 뒤의 ‘꿈’은 ‘꾸다’로 바꿀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사어와 관형어의 수식에서도 차이가 난다.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말은 여전히 품사가 용언이므로 부사어의 수식이 가능하고, 명사 파생 접미사가 붙은 말은 품사가 명사이므로 관형어의 수식이 가능하다.

예 아침에 하는 달리기는 건강에 좋다. (아침에 하는 달리다(서술성 X), 관형어 ‘아침에 하는’의 수식 ∴ 명사)

나한테는 빨리 달리기가 쉽지 않다. (빨리 달리다(서술성 O), 부사어 ‘빨리’의 수식 ∴ 동사)

신용을 얻음이 나에게 중요하다. (신용을 얻다(서술성 O) ∴ 동사)

형용사와 부사의 경우에는 더 어렵다. ‘빨리 달리다’와 ‘빠르게 달리다’의 ‘빨리’와 ‘빠르게’는 품사가 각각 다르다. ‘-이’는 **부사 파생 접미사**이고, ‘-게’는 **부사형 어미**이기 때문이다. 명사 파생 접미사와 같이 부사 파생 접미사는 품사를 부사로 바꿔버리는 기능을 한다. 부사형 어미는 부사처럼 기능을 하게 만들어 줄 뿐 품사 자체를 부사로 바꾸지는 못한다. 따라서 ‘빨리’는 부사이고, ‘빠르게’는 형용사이다.

적용 문제-5

2014학년도(2013년) 9월 평가원

〈보기〉를 바탕으로 어미를 분류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단어의 끝에 들어가는 어말어미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문장을 끝맺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

예 ‘동생은 책을 읽었다.’의 ‘-다’

㉡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

예 ‘이것은 장미꽃이고, 저것은 국화꽃이다.’의 ‘-고’

㉢ 용언을 명사, 관형사, 부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어미.

예 ‘내일 읽을 책을 미리 준비해라.’의 ‘-을’

① ‘지금쯤 누나는 집에 도착했겠구나.’의 ‘-구나’는 ㉠에 해당한다.

② ‘할아버지께서는 어디 갔다 오시지?’의 ‘-지’는 ㉠에 해당한다.

③ ‘이렇게 일찍 가는 이유가 뭐니?’의 ‘-는’은 ㉡에 해당한다.

④ ‘형은 밥을 먹었으나, 누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의 ‘-으나’는 ㉡에 해당한다.

⑤ ‘지금은 운동하기에 좋은 시간이다.’의 ‘-기’는 ㉢에 해당한다.

(5)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규칙 활용은 ‘먹다 – 먹어 – 먹으니’와 같이 어간의 형태와 어미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활용이다. 반면 불규칙 활용은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변하는 활용이다.

① 어간이 바뀌는 경우(조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갈래	내용	예	규칙 활용의 예
‘ㅅ’ 불규칙	‘ㅅ’ 탈락	잇다 → 이어, 짓다 → 지어	웃다 → 웃어, 씻다 → 씻어
‘ㄷ’ 불규칙	‘ㄷ’ → ‘ㄹ’	묻다(問) → 물어	묻다(理) → 묻어
‘ㅂ’ 불규칙	‘ㅂ’ → ‘그/느’	돕다 → 도와, 덥다 → 더워	잡다 → 잡아, 뽑다 → 뽑아
‘ㄹ’ 불규칙	‘ㄹ’ → ‘근 ㄹ’	흐르다 → 흘러, 빠르다 → 빨라	따르다 → 따라
‘우’ 불규칙	‘우’ 탈락	푸다 → 퍼	주다 → 주어(취), 두다 → 두어(둬)

② 어미가 바뀌는 경우(조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갈래	내용	예	규칙 활용의 예
‘여’ 불규칙	(‘하’-뒤에서) -아 → -여	하다 → 하여	먹다 → 먹어, 막다 → 막아
‘리’ 불규칙	-어 → -러	푸르다 → 푸르러, 이르다(至)→ 이르러	따르다 → 따라

③ 어간과 어미가 바뀌는 경우(조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갈래	내용	예	규칙 활용의 예
‘ㅎ’ 불규칙	어간의 ‘ㅎ’ 탈락 & 어미 변함	하얗다 → 하얘 파랗다 → 파래	좋다 → 좋아, 놓다 → 놓아

 **더 알아보기 I** 어간의 형태가 변해도 규칙?

‘—’ 탈락과 ‘ㄹ’ 탈락은 어간의 형태가 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규칙 활용에 속한다. 불규칙 활용의 경우 그에 대응하는 규칙 활용이 있지만 ‘—’ 탈락과 ‘ㄹ’ 탈락은 100%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ㅅ’으로 끝나는 용언은 ‘짓다’처럼 불규칙인 경우도 있고, ‘웃다’처럼 규칙인 경우도 있지만, ‘—’는 ‘쓰다 → 써, 모으다 → 모아, 담그다 → 담가’처럼 모두 탈락한다. 마찬가지로, ‘ㄹ’은 ‘ㄴ, ㅂ, ㅅ, 오’ 앞에서 ‘살다 → 사니, 삽시다, 사세, 사오’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탈락한다. 즉 보편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면 규칙 활용이다.

 **더 알아보기 I** ‘ㄹ’로 끝나는 어간의 ‘러’ 불규칙 vs ‘르’ 불규칙 vs ‘—’ 탈락

- 흐르다 → 흘러 ('ㄹ' 불규칙): 어간 불규칙 활용(흐르-+-어)
- 푸르다 → 푸르러 ('러' 불규칙): 어미 불규칙 활용(푸르-+-어)
- 치르다 → 치려 ('—' 탈락): 규칙 활용(치르-+-어)

 **더 알아보기 I** 어간 불규칙 vs 어미 불규칙 vs 어간&어미 불규칙 파악하기 필수암기

1. 형태소를 분석한다.
2. 똑같은 부분을 지운다.
3. **형태소 분석한 자리에서** 지워지지 않는 부분이 어간인지 어미인지를 파악한다.
4. 어간이 남으면 어간 불규칙, 어미가 남으면 어미 불규칙이다. 둘 다 남으면 어간&어미 불규칙이다.
5. 단, ㄹ탈락(예 살다 → 사니? 삽니다)이나 ‘—’ 탈락(예 쓰다 → 써, 따르다 → 따라)은 규칙에 포함한다(100%탈락하므로).

짓다 - 저어(젓+어)	: 어간에 ㅅ이 남았으므로 어간 불규칙 (ㅅ 탈락)
덥다 - 더위(덥+어)	: 어간에 ㅂ이 남았으므로 어간 불규칙 (ㅂ -> ㅜ)
푸르다 - 푸르리(푸르+어)	: 어미에 '어'가 남았으므로 어미 불규칙 (어 -> 러)
흐르다 - 흘리(흐르+어)	: 어간에 '르'가 남았으므로 어간 불규칙 (르 -> ㄹ ㄹ)
따르다 - 따라(따르+어)	: 어간에 '-'가 남았지만 규칙 (예외) (- 탈락)
파랗다 - 파래(파랑+어)	: 어간과 어미 모두에 남았으므로 어간, 어미 불규칙

적용 문제-6

2015년 6월 고2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변하지 않거나 바뀌어도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를 '규칙 활용'이라고 하고,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는 것을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불규칙 활용'이라 한다. 불규칙 활용은 ① 어간이 바뀌는 경우, ② 어미가 바뀌는 경우, ③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① '솟다'가 '솟아'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낫다'는 '나아'로 활용하므로 ①에 해당한다.
- ② '얻다'가 '얻어'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엿듣다'는 '엿들어'로 활용하므로 ①에 해당한다.
- ③ '먹다'가 '먹어'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하다'는 '하여'로 활용하므로 ②에 해당한다.
- ④ '치르다'가 '치라'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흐르다'는 '흘러'로 활용하므로 ③에 해당한다.
- ⑤ '수놓다'가 '수놓아'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파랗다'는 '파래'로 활용하므로 ④에 해당한다.

적용 문제-7

2020년 4월 고3

〈보기 1〉의 ① ~ ⑥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예를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보기 1〉

용언의 활용은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으로 나눌 수 있다. ① 규칙 활용은 용언이 활용될 때 어간과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지 않거나,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는 모습을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불규칙 활용은 용언이 활용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는 이유를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 불규칙 활용에는 ② 어간이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경우, ③ 어미가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경우, ④ 어간과 어미가 모두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보기 2〉

- 놀이터에서 놀다 보니 옷에 흙이 묻었다.
- 나는 동생에게 출발 시간을 일러 주었다.
- 우리는 한라산 정상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
- 드디어 사람들은 그를 우러러 섬기게 되었다.
- 하늘은 맑고 강물은 파래 기분이 정말 상쾌했다.

	①	②	③	④
①	묻었다	이르러	일러, 우러러	파래
②	일러	이르러, 파래	묻었다	우러러
③	이르러	묻었다, 우러러	파래	일러
④	묻었다, 우러러	일러	이르러	파래
⑤	일러, 우러러	묻었다	파래	이르러

적용 문제-8

2021학년도(2020년) 수능

ⓐ~ⓔ는 잘못된 표기를 바르게 고친 것이다. 고치는 과정에서 해당 단어에 적용된 용언 활용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물 떡볶이’ 만드는 법

- 떡을 물에 담궈둔다. → ① 담가
- 멸치를 물에 넣고 끓인 다음 체에 거려서 육수를 준비한다. → ⑥ 걸려서
- 육수에 고추장, 같은 마늘, 불린 떡, 어묵을 넣는다. → ⑦ 간
- 하했던 떡이 빨갛게 될 때까지 잘 절(절)어 익힌다. → ⑧ 절어

- ① ⓐ : 예쁘-+ -어도 → 예뻐도
- ② ⓑ : 푸르-+ -어 → 푸르러
- ③ ⓒ : 살-+ -니 → 사니
- ④ ⓓ : 동그랗-+ -아 → 동그래
- ⑤ ⓔ : 굿-+ -은 → 그은

1.3 수식언 – 관형사, 부사

(1) 관형사: 체언의 뜻이 분명해지도록 한정해주는 말. 체언 앞에 놓여 체언을 수식함

① 성상 관형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

우리말 관형사:

★ 표시는 무조건 눈에 익혀놓아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한번 훑어보자.

갖은 예 갖은 노력을 다하다. ☆

긴긴 예 긴긴 세월

까짓 예 까짓 고생쯤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예 그는 자기 일 밖의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 ☆

맨 예 그는 맨 처음 결승선에 도착했다. ☆

먼먼 예 그를 만난 것이 먼먼 옛날의 일 같다.

모든 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

몹쓸 예 나는 그에게 몹쓸 소리를 마구 해 댔다.

무슨 예 무슨 일 있었니?

못 예 어둠 저쪽에서 못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 왔다.

새 예 새 집을 마련했다. ☆

아무런, 아무 예 나는 그와 아무런(아무) 사이가 아니다.

애면 예 애면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다.

어느 예 어느 것이 맞는 답입니까?

여남은 예 여남은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여느 예 오늘은 여느 때와 달리 일찍 자리에서 일 어났다.

옛 예 10년 뒤 찾은 고향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
☆

오랜 예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렸다.

오른 예 오른 손

온 예 온 집안

온갖 예 온갖 정성을 기울이다. ☆

외딴 예 나는 외딴 마을로 들어섰다. ☆

왼 예 왼 손

웬 예 웬 날벼락이람.

지 지난 예 지난 주말

첫 예 재섭이는 오늘 첫 월급을 받았다. ☆

한다하는(=한다는)

예 그 씨름판에는 한다하는 선수가 다 모였다.

허튼 예 그는 허튼 말을 하고 다닐 사람은 아니다.
☆

현 예 현 신문지를 모으다. ☆

한자어 관형사:

한자어 관형어는 거의 나오지 않으니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둬도 괜찮다.

각(各) 예 각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만(滿) 예 만 나이로는 십오 세이다.

매(每) 예 그 팀은 매 경기 우승했다.

별(別) 예 그와 나는 별 사이가 아니다.

별의별(別一別), 별별

예 별의별(별별) 사람이 다 있네.

순(純) 예 순 살코기

약(約) 예 약 두 시간

양(兩) 예 양 집안의 반대로 결혼이 무산되었다.

전(全) 예 전 국민

전(前) 예 전 대통령

주(主) 예 주 고객

현(現) 예 현 대통령

② 지시 관형사

예 이, 그, 저, 이런, 그런, 저런 (예 이 사람, 그 사람, 이런 사람 ……)

지시 대명사와 다르다! 지시 대명사는 체언이기 때문에 뒤에 조사가 결합된다. 반면 관형사에는 어떠한 조사도 붙을 수 없고, 홀로 뒤의 체언을 꾸며준다.

③ 수 관형사

예 한, 두,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 (예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등)

1. 품사

한 줄 N제

정답 및 해설 p.23

1. 체언에는 _____, _____, _____가 있다.
2. 명사는 자립성 유무에 따라 _____, _____로 나뉜다.
3. 의존명사는 반드시 _____의 꾸밈을 받아야 문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명사이다.
4. ‘영미가 가져 온 것은 책이다.’에서 의존 명사는? _____
5.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에서 의존 명사는? _____
6. ‘당신’은 _____인칭 대명사로도, _____인칭 대명사로도 쓰인다.
7. ‘그 일은 우리들이 알아서 할게.’에서 주어는 _____인칭 대명사이다.
8. ‘너희들은 무엇을 좋아하니?’에서 주어는 _____인칭 대명사이다.
9. 재귀대명사는 _____인칭 대명사에 속한다.
- ☆ 10. ‘할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직접 이부자리를 개신다.’에서 ‘당신’은 _____인칭 대명사이다.
11. ‘이, 그, 저’ 중에서 화자와 청자에게서 모두 먼 대명사는? _____
- ☆ 12. 특정 대상이 정해져 있지만 모르는 것은 [미지칭/부정칭]이고, 특정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은 [미지칭/부정칭]이다.
13. 수사는 _____와 _____로 나뉘며, _____계와 _____계가 존재한다.
- ☆ 14. 수사와 수관형사는 조사의 결합 여부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조사와의 결합이 가능하면 _____이고, 불가능하면 _____이다.
15. 동사는 목적어를 취하면 _____이고, 목적어를 취하지 않으면 _____이다.
16. 문장에서 목적어라고 하면, 목적격 조사 _____(이)/가 붙은 것을 의미한다.
17. 동사는 현재 시제 ‘-(느)ㄴ다’가 결합할 수 [있고/없고], 형용사는 결합할 수 [있다/없다].
18. _____은 홀로 자립하여 쓸 수 없으며 본래 용언의 의미에서 벗어나 본용언의 뜻을 더해준다.
19. 보조 용언 중, 부정을 나타내는 _____, _____는 앞 용언의 품사에 따라 품사가 결정된다.
20. 동사나 형용사가 어미를 바꾸면서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_____(이)라고 하고, 그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_____(이)이라고 한다.
21. ‘예쁘고, 높아서, 달려서’에서 각각의 어간은?
- ☆☆ 22. 어간 뒤에 붙어서 활용할 때 변하는 부분을 ①_____라고 한다. ①_____는 크게 단어의 끝에 오는 ②_____와 단어의 끝에 오지 않는 ③_____로 나눌 수 있다. ②_____는 또 문장을 끝내는 ④_____로, 문장을 연결하는 ⑤_____로, 성질을 바꿔주는 ⑥_____로 나눌 수 있다. ③_____의 의미는 대부분 ⑦_____와(과) ⑧_____ 표현을 나타낸다.
- ☆☆ 23. [용언의 명사형/파생 명사]은(는) 관형어의 수식이 불가능하나, [용언의 명사형/파생 명사]은(는) 관형어의 수식이 가능하다.
- ☆☆ 24. [용언의 명사형/파생 명사]은(는) 부사의 수식이 가능하나, [용언의 명사형/파생 명사]은(는) 부사의 수식이 불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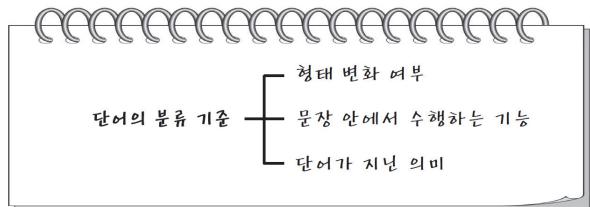
01. 품사

나랏말쌈

정답 및 해설 p.3

1. 다음은 문법 수업의 내용을 정리한 학생의 노트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년 11월 고1]



<보기>

- 우리도 두 팔을 넓게 벌려 원 하나를 이루었다.
- 동생이 나무로 된 탁자에 그린 꽃만 희미하다.

- ① ‘도’와 ‘만’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이다.
- ② ‘이루었다’와 ‘그린’은 형태가 변하는 단어이다.
- ③ ‘두’와 ‘하나’는 문장 안에서 수식의 기능을 하는 단어이다.
- ④ ‘나무’와 ‘꽃’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 ⑤ ‘넓게’와 ‘희미하다’는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2. <보기>에 나오는 ‘부사’의 특성에 대해 학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9년 9월 고2]

<보기>

몇 시간이 흐른 뒤 도착한 곳은 ①겨우 열 평 남짓한 간이역이었다. 역사(驛舍) ②바로 옆 노점 아낙들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은아를 맞았다. ‘③설마 민우가 이곳에 있지는 않겠지.’ 은아는 코스모스 활짝 핀 거리를 지나 언덕을 오르며 생각한다. ④부디 민우가 어디에 살고 있는 편안하게 지냈으면 하는 생각뿐이다. 오랫동안 ⑤못 만났지만, 은아의 마음속에 늘 머물러 있는 민우였다.

- ① ①은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 앞에도 오는군.
- ② ②은 체언을 꾸며 주어 그 의미를 제한하고 있군.
- ③ ③은 부정적인 추측을 강조할 때 쓰이는군.
- ④ ④은 문장에서 놓이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군.
- ⑤ ⑤은 용언의 의미를 부정하는 기능을 하는군.

3. <보기>를 바탕으로 목적격 조사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0년 11월 고2]

<보기>

목적어는 타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는 문장 성분으로 ‘체언+목적격 조사(을/를)’의 형태로 성립된다.

예) 나는 독서를 즐긴다. / 그는 책을 사랑한다.

- ㄱ. 그는 누굴 더 사랑할까
- ㄴ. 나는 사과는 좋아해. / 나는 사과를 좋아해.
- ㄷ. 나는 너만을 좋아해. / 나는 너를 좋아해.
- ㄹ. 나는 영수와 만났다. / 나는 영수를 만났다.
- ㅁ. 선생님께서 책을 열 권을 주셨다.

- ① ㄱ : 목적격 조사가 ‘ㄹ’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구나.
- ② ㄴ : 목적격 조사의 자리에 보조사 ‘는’이 쓰이기도 하는 구나.
- ③ ㄷ : 체언과 목적격 조사 사이에 다른 보조사 ‘만’이 올 수도 있구나.
- ④ ㄹ : 부사격 조사 ‘와’를 목적격 조사로 바꾸어 쓰기도 하는구나.
- ⑤ ㅁ : 한 문장에서 목적격 조사가 두 번 나오더라도 이를 생략해서는 안 되겠구나.

4.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단어가 보조용언으로 사용된 것은? [2011년 6월 고2]

<보기>

- 본용언은 실질적인 뜻을 나타내고, 보조용언은 본 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 예) 사람들이 모두 가 버렸다. : ‘버렸다’는 ‘가다’의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는 뜻을 보충함.

- ① 영화는 밥을 먼저 먹고 보자.
- ② 철수는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
- ③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놀고 왔다.
- ④ 힘이 드니 잠시 여기 있다 가자.
- ⑤ 봄에는 제주도로 여행을 가고 싶다.

5.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용언’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3년 11월 고2]

〈보기〉

ㄱ. 날씨가 덥다.
 ㄴ. 날씨가 더워 온다. / 날씨가 더워온다.
 ㄷ. 철수가 밥을 먹고 갔다. / *철수가 밥을 먹고갔다.
 ㄹ. 영희가 종이배를 접어 띄웠다.
 ⇒ 영희가 종이배를 접었다. + 영희가 종이배를 띄웠다.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ㄱ, ㄴ으로 볼 때, 한 용언이 홀로 쓰이기도 하고 다른 용언과 어울려 쓰이기도 하는군.
- ② ㄴ의 경우, 뒤의 용언이 앞의 용언의 의미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군.
- ③ ㄷ으로 볼 때, 문장 안에서 두 용언이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띄어 써야 하는군.
- ④ ㄴ과 ㄷ은 모두 ㄹ처럼 의미가 성립하는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겠군.
- ⑤ ㄴ~ㄹ로 볼 때, 두 용언이 어울려 쓰일 경우 ‘-아/어’, ‘-고’와 같은 어미로 연결되는군.

6. <보기>의 밑줄 친 단어를 바르게 분류한 것은?

[2014년 6월 고2]

〈보기〉

형용사와 관형사를 구별하는 기준의 하나로 ‘서술하는 기능’이 있다. 예를 들어, ‘동물원에는 큰 사자가 있다.’에서 ‘큰’은 ‘사자가 크다’처럼 주어인 ‘사자가’를 서술하는 기능을 하므로 형용사이다. 그러나 관형사는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

ㄱ. 정원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
 ㄴ. 웬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ㄷ. 수리를 하고 나니 새 가구가 되었다.
 ㄹ. 모여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봤다.
 ㅁ. 그의 빠른 일처리가 사람들을 만족스럽게 하였다.

<u>형용사</u>	<u>관형사</u>
① ㄱ, ㄷ	ㄴ, ㄹ, ㅁ
② ㄱ, ㅁ	ㄴ, ㄷ, ㄹ
③ ㄴ, ㄹ	ㄱ, ㄷ, ㅁ
④ ㄱ, ㄷ, ㅁ	ㄴ, ㄹ
⑤ ㄴ, ㄷ, ㄹ	ㄱ, ㅁ

7.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년 9월 고2]

〈보기〉

[선생님의 설명]

보조사 ‘도’는 쓰임새와 의미가 다양해요. 제언뿐만 아니라 연결어미나 부사, 조사와도 결합할 수 있어요. 또 다양한 문장 성분 자리에 사용되어 ‘더함’이나 ‘동격’의 의미를 덧붙입니다. ‘놀라움의 감정’을 강조하기도 하고, ‘다른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요. 다음 수업 자료를 보면서 ‘도’의 다양한 쓰임새와 의미를 알아볼까요?

[수업 자료]

우리 가족들은 오랜만에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댁을 방문했다. 나는 사촌 동생들과 저녁때까지 신나게 뛰어 놀고 내가 좋아하는 ㉠ 축구도 함께 했다. 주변이 점점 어두워져서 집에 들어왔더니 어머니께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다. ㉡ 평소에도 잘 먹지 않던 나물반찬이 많아 밥만 먹고 있었더니 할머니께서는 ㉢ 반찬도 먹으라며 무라셨다. 저녁을 대충 먹고 사촌 동생들과 함께 고구마를 ㉣ 깎아도 먹고 구워도 먹었다. 배가 부르자 피곤이 밀려와서 씻기는커녕 옷을 ㉤ 갈아입지도 못하고 잠들어 버렸다.

- ① ㉠: 보조사 ‘도’는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군.
- ② ㉡: 보조사 ‘도’는 다른 조사와 결합이 가능하군.
- ③ ㉢: 보조사 ‘도’는 놀라움의 감정을 강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군.
- ④ ㉣: 보조사 ‘도’를 통해 두 가지 행위가 동등하게 일어남을 알 수 있군.
- ⑤ ㉤: 보조사 ‘도’를 통해 다른 일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군.

8.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4년 11월 고2]

이1 [의존명사]

‘사람’의 뜻을 나타내는 말.

이2

[1] [대명사]

- 1)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2] [관형사]

- 1)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
¶ 노력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이3

[1] [주사]

- 1) 일에 일을 더한 수, 아라비아 숫자로는 ‘2’, 로마 숫자는 ‘Ⅱ’로 쓴다.

[2] [관형사] (일부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여)

- 1) 그 수량이 둘임을 나타내는 말.

- ① ‘저 모자를 쓴 이가 누구지?’의 ‘이’는 사람을 뜻하므로 ‘이1’의 용례가 되는군.
- ②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뜻풀이가 있으므로 ‘이2’는 다의어에 해당하는군.
- ③ ‘이2 [1] 1’의 용례와 ‘이2 [2] 1’의 용례를 통해 ‘이2’는 조사의 결합 가능 여부에 따라 품사를 구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이 킬로미터를 걸어라.’에서 ‘이’는 단위를 나타내는 말 앞에 쓰이므로 ‘이3 [1] 1’의 용례로 들 수 있군.
- ⑤ ‘이1’, ‘이2’, ‘이3’은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된 걸 보니 서로 동음이의 관계이군.

9.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5년 6월 고2]

<보기>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변하지 않거나 바뀌어도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를 ‘규칙 활용’이라고 하고,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는 것을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불규칙 활용’이라 한다. 불규칙 활용은 ⑦ 어간이 바뀌는 경우, ⑧ 어미가 바뀌는 경우, ⑨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① ‘솟다’가 ‘솟아’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낫다’는 ‘나야’로 활용하므로 ⑦에 해당한다.
- ② ‘얻다’가 ‘얻어’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엿듣다’는 ‘엿들어’로 활용하므로 ⑧에 해당한다.
- ③ ‘먹다’가 ‘먹어’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하다’는 ‘하여’로 활용하므로 ⑨에 해당한다.
- ④ ‘치르다’가 ‘치리’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흐르다’는 ‘흘러’로 활용하므로 ⑦에 해당한다.
- ⑤ ‘수놓다’가 ‘수놓아’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파랗다’는 ‘파래’로 활용하므로 ⑨에 해당한다.

10. <보기>의 [가]를 바탕으로 [나]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16년 6월 고2]

<보기>

[가] 품사는 단어를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⑦ ‘형태’에 따라 불변어, 가변어로, ⑧ ‘기능’에 따라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뉜다. 그리고 ⑨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로 나뉜다.

[나] 열에 아홉은 매우 착실한 학생이다.

- ① ⑦에 따라 나누면 ‘착실한’과 ‘이다’는 가변어이다.
- ② ⑧에 따라 나누면 ‘열’과 ‘학생’은 체언이다.
- ③ ⑨에 따라 나누면 ‘은’과 ‘이다’는 관계언이다.
- ④ ⑩에 따라 나누면 ‘아홉’과 ‘학생’은 같은 품사이다.
- ⑤ ⑪에 따라 나누면 ‘매우’와 ‘착실한’은 다른 품사이다.

11.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2016년 9월 고2]

<보기>

㉠ 관형사, ㉡ 대명사, ㉢ 부사 중에는 ‘이, 그, 여기, 이리, 그리’ 등과 같이 ‘지시성’을 지닌 단어들이 있다. 이들은 지시성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구별이 쉽지 않으므로 문장 내에서의 기능을 통해 단어의 품사를 파악해야 한다.

- Ⓐ 의 사과는 맛있게 생겼다.
- Ⓑ 그 책 좀 나에게 빌려줄 수 있어?
- Ⓒ 여기가 바로 우리의 고향입니다.
- Ⓓ 이리 가까이 오게.
- Ⓔ 그리 물건을 보내겠습니다.

	㉠	㉡	㉢
①	a	b, c	d, e
②	a, b	c	d, e
③	b, c	d, e	a
④	b, d	e	a, c
⑤	c, d	a	b, e

1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7년 3월 고2]

<보기>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ㄴ’을 결합하고자 할 때, 어간의 끝소리가 ‘ㄹ’인 경우에는 ‘ㄹ’을 탈락시키고 ‘-ㄴ’을 붙여야 한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ㄹ’을 탈락시키지 않고 ‘-은’을 잘못 붙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녹슬- + -ㄴ → 녹슨(O)
→ 녹슬은(X)

- Ⓐ 언니는 시들을 꽂다발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다.
- Ⓑ 자신의 잘못임을 깨달은 형은 누나에게 사과했다.
- Ⓒ 낮설은 땅에 정착한 주민들은 모든 것이 새로웠다.
- Ⓓ 나는 차창 밖으로 내밀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다.
- Ⓔ 석양빛을 받아붉게 물들은 구름이 꽤 아름다웠다.

13.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년 11월 고2]

<보기>

부사는 수식하는 범위에 따라 문장의 한 성분을 수식하는 성분 부사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로 나뉜다. 이 중 성분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지만 때로는 체언을 수식하거나 관형사,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 ㄱ. 그녀는 매우 빨리 달린다.
- ㄴ. 설마 나에게 맞는 옷이 없을까?
- ㄷ. 우리 학교 바로 옆에 우체국이 있다.
- ㄹ. 내 차는 얼마 전까지 아주 새 차였다.
- ㅁ. 과연 그 아이는 재능이 정말 뛰어나군.

- ① ㄱ에서 ‘매우’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다.
- ② ㄴ에서 ‘설마’는 체언을 수식하고 있다.
- ③ ㄷ에서 ‘바로’는 부사를 수식하고 있다.
- ④ ㄹ에서 ‘아주’는 관형사를 수식하고 있다.
- ⑤ ㅁ에서 ‘과연’과 ‘정말’은 문장을 수식하고 있다.

14. <보기>의 ㉠ ~ ㉢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년 6월 고2 변형]

<보기>

- ㉠ 그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
- ㉡ 철수야, 내일이 무슨 날이니?
- ㉢ 이번에 성적이 많이도 올랐구나!
- ㉣ 언니가 동생의 간식을 만들고 있다.
- ㉤ 백화점에 가서 구두랑 모자랑 샀어요.

- ① ㉠의 ‘이’는 체언인 ‘인물’에 붙어 주어의 자격을 갖게 한다.
- ② ㉡의 ‘이니’는 체언인 ‘날’에 붙어 서술어의 자격을 갖게 한다.
- ③ ㉢의 ‘도’는 부사인 ‘많이’에 붙어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구실을 한다.
- ④ ㉣의 ‘의’는 체언인 ‘동생’에 붙어 관형어의 자격을 갖게 한다.
- ⑤ ㉤의 ‘랑’은 ‘구두’와 ‘모자’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